

# 순천 '아권단일후보' VS '무소속' 각축

### 민주 후보 무공천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잇따라 전·현 시도의원들 무소속 지지... '무늬만 무공천' 논란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가운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와 무소속 6명의 후보의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순천 보선에서는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위한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면서 애초 민주당 경선을 노렸던 출마 예상자들이 대거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무소속 출마자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한 5명을 포함한 6명의 무소속 후보와 야권연대 후보로 선정된 민노당 김선동(43) 후보가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주당 핵심당원들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잇달아 선언하면서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탈당 줄이어=오는 12~13일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민주당 출신 출마 예상자들의 탈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구희승(48·변호사) 예비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은 정당의 존립이유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순천 시민과 순천 민주당원들의 기대를 외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상철(51·경기도 교수) 예비후보도 이날 순천시내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순천 발전, 민생경제,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의 조순용(59·전 청와대 정무수석) 예비후보와 허상만(67·전 농림부 장관) 예비후보도 최근 무소속 출마 뜻을 분명히 했다. 허상만(68·전 농림부장관) 예비후보도 12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을 선언할 계획이다.

◇세 대결 속 '민주당, 무늬만 무공천' 논란=민주당이 야권연대 차원에서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를 무공천 했지만, 민주당 시·도의원 등 핵심당원들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잇달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순용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병휘 순천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10여 명 등 핵심당원 30여명이 조순용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조순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가 민노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이날 순천 출신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4명과 시의원 9명, 무소속 1명 등 14명의 시·도의원들이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상만 '논란'은 민주당이 야권연대 차원에서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를 무공천 했지만, 민주당 시·도의원 등 핵심당원들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잇달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이밖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구희승, 박상철 예비후보들도 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핵심당원들이 각각 자신의 지지를 선언했

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중훈 전 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27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참과 함께 야권연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 전·현직 시·도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 의견이 잇따르면서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선동 후보 측은 이날 등 14명의 시·도의원들이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상만 '논란'은 민주당이 야권연대 차원에서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를 무공천 했지만,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야권연대에 반발하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야권 단일 후보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재보선 모의투표 체험하는 학생들이 투표 후 개표를 하고 있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화순중에서 개최한 '미래 유권자 모의투표 체험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모의투표 후 개표를 하고 있다.

# 50~60대 한나라, 20~30대 민주당 지지 세대별 투표율 재보선 희비 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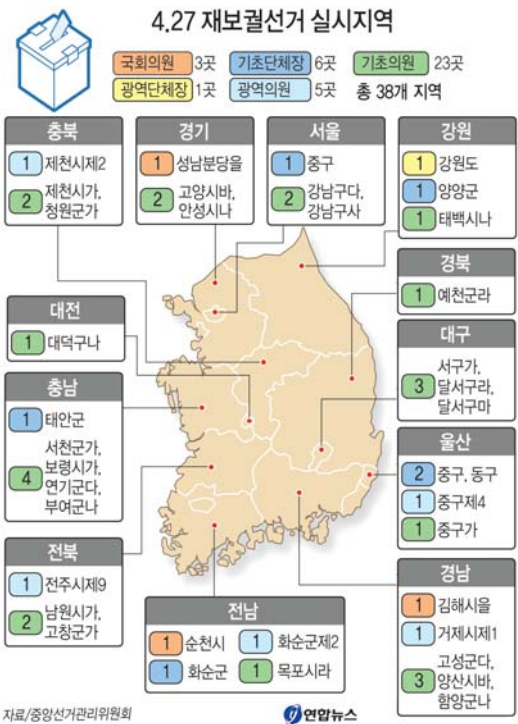
4·27 재보선 결과는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장·노년층은 한나라당 지지 성향이, 청년 및 중년층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그 어느 선거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50~60대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20~30대에서 각각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섰고 있다.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50~60대에서 20~40% 포인트, 민주당 최문순 후보는 20~30대에서 15~25% 포인트 가량 각각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비교적 투표율이 높은 장년층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인 관세가 박빙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최대 격전지인 분당과 강원에서 20~30대 투



표율이 당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투표율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이들의 투표율이 승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는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투표독려 캠페인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방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방식을 안내하는 자당 명의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중단 요구에 강력 반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현재 관세는 분당의 경우 박스권인 6% 포인트 내에서 초반급 승부를 벌이고 있으며, 강원에서는 한나라당 엄 후보가 민주당 최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10% 포인트 차로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 을 보선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나홀로 선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향후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지권 관계자는 "재보선은 일반적 으로 투표율이 낮아도 현재 박빙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끌어오는 정당이 결국 승리를 엿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선관위, 4·27 재보선부터 과열·혼탁 선거구 공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7 재보선 선거구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해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일 "과열·혼탁 선거구 지정은 1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3곳, 광역 및 기초단체장 재보선 지역 7곳 등 10곳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8, 9일 여론조사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과열·혼탁 선거구를 지정해 특별관리했으나 해당 선거구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들 선거구에는 특별기동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4·27 재보선선거의 과열·혼탁 가능성에 대비해 선거가 실시되는 총 38개 지역에 단속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시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KAIST 잇단 자살 '경쟁 교육' 탓" 국회 대정부 질문... 김총리 '원전 정책 폐기 못해'

여야는 11일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원자력 발전 안전성 문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 자살사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충청권 출신의 야당 의원은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고 여당 일각에서는 지역갈등 심화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재보선 직전인 지난 7월 충남 천안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속하는 유세 동영상 보여주면서 "분산 배치야말로 과학자들의 의견조차 강고히 무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도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공약인 과학벨

트 충청권 선정의 차질없는 이행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전 안전성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전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 '원전 제로 국가'가 되기 위해 고리 1호기를 이른 시일 내 가동중지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KAIST 학생들의 잇단 자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지나친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과도한 경쟁적 교육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충간 5·18 광로변)
-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번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임 코너

H.P.011-601-5354

###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할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 소재) 2층

### 다산공인중개사

물류창고 부지구합 매매·임대

**광주권**

**전남일원**

**자연녹지**

**생산녹지**

8M이상 도로 확보

4500㎡ 이상 (1300평 이상)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광산구 광산동 농장·양어장(용)매매

- ▶ 면적: 4,000평, 철도및유지(그린벨트) 관리사 15평(가든가능) 8미터 도로접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매매

- ▶ 계획관리지역: 면적-14,000평, 8,500평 (10도 경사, 2차선 도로접)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 ▶ 자연녹지: 700평 ▶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광산구 하남공단내 공장매매

- ▶ 대 지: 700평
- ▶ 건물: 415평 (공장, 사무실, 기숙사)
- ▶ 전 기: 400kW
- ▶ 9번 도로접
- ▶ 매매가격: 13억

화순 남면 매리 집종지매매

- ▶ 면 적: 1,800평(보전관리)
- ▶ 건물: 건물 32평
- ▶ 매매가격: 2억원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같은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돕고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밝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